

보도시점 2024. 2. 29.(목) 10:30 이후 사용 배포 2023. 2. 28.(수) 16:00

역대 최대 규모 ODA,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 정부, 올해 ODA 규모 6조 2,629억원(전년대비 31.1%↑) 확정,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의지 구현 -
- 양적 확대와 더불어, ODA의 질적 도약을 위해 혁신 추진 -

□ 정부는 2월 29일(목)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아세안 개발협력전략」, 「'23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 및 '24년 평가계획」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4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4.2.29. (목) 9:00 /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국무총리(위원장) 이하 관계부처장, 민간위원 등 총 24인
- 회의안건 :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등 총 3건

□ 정부는 올해 ODA 규모를 역대 최대인 6조 2,629억원(전년 대비 1조 4,858억원 증가, 31.1%↑)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 이는 ‘20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2019년(3.2조원) 대비 2배 이상 확대’ 하겠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오사카 G20 정상회의('19.6.) /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1.))을 크게 앞당겨 달성하는 수준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 한편, 정부는 예산 규모 확대에 따른 성과 제고의 일환으로 유·무상 차원의 ODA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였고, ODA 추진방식과 체계 등에 관한 혁신로드맵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중장기 과제는 기본계획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 오늘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ODA 규모 확대와 더불어, 그에 걸맞은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 ODA 체질 개선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 심의·의결된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기준)

- 정부는 '24년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작년 대비 31% 증가한 6조 2,629억원으로 총 46개 기관(지자체 12개 포함), 1,97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다자 비율은 82:18로 양자사업 규모는 5.13조원, 다자사업 규모는 1.13조원이며, 유무상 비율은 40:60으로 요구액 대비 유상비율이 0.3%p 증가하였다.
 - 지역별로는 전년대비 아시아(38.5 → 31.8%)와 아프리카(19.4 → 18.3%) 지역 비중이 줄고, 중동·CIS(4.1 → 9.2%)와 중남미(7.5 → 7.7%) 비중이 증가했다.
 - 분야별로는 인도적 지원(17.5%), 교통(15.1%), 보건(9.0%)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해외긴급구호 2배 이상*, 식량원조 2배(5→10만톤), 보건위기 기여 확대** 등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인도적 기여를 크게 확대하였다.
 - * ('22년) 2,323억원 → ('23년) 2,951억원 → ('24년) 7,346억원
 - ** ACT-A 3억불('23-'25), 글로벌펀드 1억불('23-'25) 등 기여 확대 및 보건격차 해소 지원
- 특히,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성과 제고 기반 공고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 프로세스별 문제점 개선을 위한 중·장기 혁신 로드맵과 집행관리 개선 등을 담고 있다.
 - 당장 올해 크게 늘어난 예산에 대해서는 부실집행과 예산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ODA 통합정보포털시스템을 통해 집행상황을 분기별 점검하고, 종료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확대를 통해 사업 관리를 크게 강화하는 한편,
 - 임팩트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원국 수요에 맞춰 대형 인프라 사업*과 민관이 협업하는 패키지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 (경제) 인도 고속도로 ITS 구축(2,151억원) / (사회) 방글라데시 종합병원 건립사업(3,203억원) 등
 - ** 이집트 철도 현대화 사업(EDCF+EDPF, '23~'27) 패키지
(EDCF, 1,3088원) 철도 전자시스템 + (EDCF+EDPF, 3,348억원) 철도 현대화+ (KOICA) 인력양성 등
→ 노후화된 기간교통망 현대화로 이집트 경제발전 주민 이동편의 향상 기여, 국내 철도관련 기업 진출

- 이 외에, 현장성·통합성 제고를 위해 사업발굴·모니터링 시 재외공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사업 확대 및 주요 종료사업의 실태 파악 등 사후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 아세안 개발협력전략

- 아세안 개발협력전략은 작년초 의결한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에 이은 두번째 지역전략으로서, 우리 인도-태평양전략의 對아세안 지원방향을 구체화*하고, 아세안의 연결성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인태전략상 對아세안 ODA 중점협력분야 : 디지털, 교육, 기후변화, 스마트시티, 교통 등

- 아세안은 역내 국가 간에 상하위중소득국·최저개발국 등 발전수준의 격차가 존재하고, 역내 공동번영 등을 위한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동 전략을 통해 아세안 연결성 전략 실현을 위한 개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세안 연결성 종합계획(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16) 등을 통해 물리적(교통, 물류, 에너지 등)·제도적(무역, 투자 등)·인적(교류) 연결성을 강조

- 협력국의 발전단계에 따라 ▲인프라, ▲디지털, ▲산업 등의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득국은 ‘혁신역량 강화(Innovative ASEAN)’를, 저소득국은 ‘포용발전 지원(Inclusive ASEAN)’을 중점 목표로 맞춤형 협력방안을 추진하고,

	인프라	디지털	산업
혁신역량 강화	경제인프라 대형화·고도화	디지털 혁신 지원	미래산업 협력 강화
포용발전 지원	사회인프라 확충	디지털 격차 해소	주력산업 발전 지원

- 美·日 등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초국경 이슈인 ‘기후 변화 및 환경보호’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다.
- 아울러, 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대규모 시그니처 사업을 기획·추진 하고, 다 국가 간 협력 등을 통해 성과를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

3. '23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 및 '24년 평가계획

- 마지막으로, 국개위 차원에서 '24년 평가계획을 의결하였다. 작년에 이어 ODA 성과 제고 강화 차원에서 기관역량진단과 국별종합진단을 실시하고, 다수 부처에서 추진하는 연수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새롭게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 특히 올해는 현장과 전문가 중심, 사업성과 지속성 확보, 자체평가 품질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동 위원회에서는 '21~'23년간의 주요정책과 전략, ODA 시행기관의 추진실적, 우수사례 등을 정리한 「대한민국 ODA 백서」가 공개되었다.
 - 내년부터는 그간 3년 주기로 발간했던 ODA 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우리나라 ODA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붙임】 제4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류승목 (044-200-2148)
		담당자	사무관	양희경 (044-200-2162)
담당 부서 <안건 1>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류승목 (044-200-2148)
		담당자	사무관	범진이 (044-200-2161)
	국무조정실 사업연계조정과	책임자	과 장	조민호 (044-200-2164)
		담당자	사무관	강혜인 (044-200-2166)
담당 부서 <안건 2>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전략과	책임자	과 장	배성현 (044-200-2157)
		담당자	사무관	김영주 (044-200-2158)
담당 부서 <안건 3>	국무조정실 평가기획과	책임자	과 장	전창현 (044-200-2074)
		담당자	사무관	강현수 (044-200-2076)

1. '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1 추진배경 및 여건

- **(배경)**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25)」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24년 추진계획 구체화
 - * ‘24년 종합시행계획(요구액 기준) 의결(‘23.6.30.) 이후 환경 변화, 국회 확정예산 등 추가 반영
- **(여건)** 분쟁, 기후·식량 등 글로벌 복합위기 증가, 개발협력 자원 부족 / 대외정책 연계 수원국 맞춤형 SDGs 이행 지원 수요 증가, 양적 확대*에 따른 질적 고도화 필요 시점
 - * (‘22년) 3.94조원 → (‘23년) 4.78조원, 21.3%↑ → (‘24년) 6.26조원, 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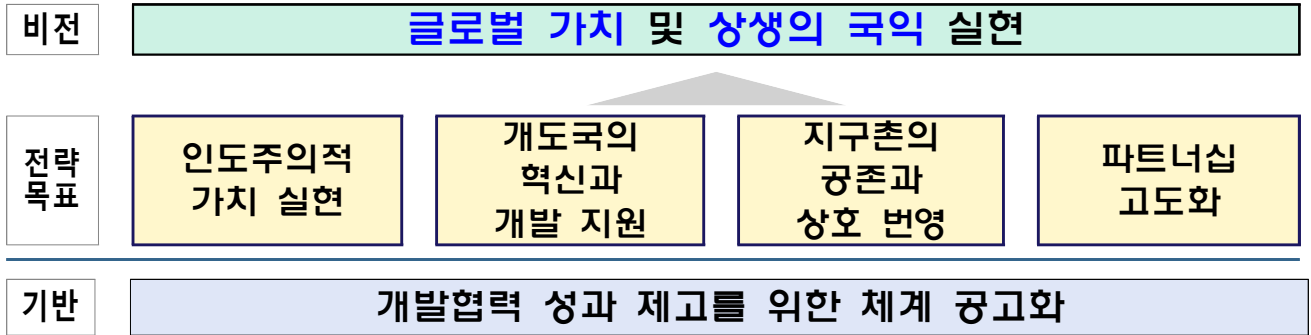
2 '24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계획

- ◆ **인도주의 가치 실현 및 글로벌 현안 해결 기여 확대**
- ◆ **대외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및 전략적 ODA를 통한 상생의 국익 실현**
- ◆ **집행점검, 현지사업 관리 내실화 등 ODA 성과 제고 추진**

1] 사업 개요

- **(총괄)** ‘24년 ODA 총규모는 6조 2,629억원(총 46개 기관 1,976개 사업), 양자사업 5.13조원 / 다자사업 1.13조원 (양다자 비율 82:18)
 - * ‘23년 대비 ▲규모 1.5조원 증가(31%↑) ▲참여기관 1개 증가(국세청) ▲사업 136개 증가(7.4%↑)
- **(유형)** 양자사업 中 유상 2.03조원 / 무상 3.10조원 (유무상 비율 40:60)
- **(지역)** 아시아(31.8%) > 아프리카(18.3%) > 중동·CIS(9.2%) > 중남미(7.7%) 順
 - * ‘23년 대비 중동·CIS(4.1 → 9.2%), 중남미(7.5 → 7.7%) 등 비중 증가
- **(분야)** 인도적 지원(17.5%) > 교통(15.1%) > 보건(9.0%) 順
 - * ‘23년 대비 인도적 지원(6.5%p↑) 분야가 큰 폭으로 증가
- **(사업 조정)** 총 144건(294개 사업), ▲유·무상 사업 연계 39건(80개 사업) ▲무상사업 간 연계 91건(200개 사업) ▲중복사업 방지 14건(14개 사업) 조정

2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 인도주의적 가치 실현 】

- 급증하는 분쟁과 재난·재해 피해에 국가·사안별 적정 규모로 지원, 지속가능한 회복에 기여 → 해외긴급구호* 예산 2.5배로 확대
 - * ('22년) 2,323억원 → ('23년) 2,951억원 → ('24년) 7,346억원
-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지원('24년 4억불*), 식량원조 2배 확대(5→10만톤), 보건위기 기여 확대** 등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인도적 기여 확대
 - * 인도적지원 2억달러, 국제금융기구 1억달러, EDCF 차관사업 1억달러 등
 - **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2억불('21~'25) ▲ACT-A 3억불('23-'25) ▲글로벌펀드 1억불('23-'25)

【 개도국의 혁신과 개발 지원 】

- 과학기술·ICT 중점협력공관(베트남·캄보디아·르완다·페루) 시범사업 확대, 스마트팜·스마트시티·디지털정부 등 혁신 인프라 조성 적극 지원*
 - * ▲인도네시아 신수도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설립·운영 사업('24-'26, 99억원) ▲스리랑카 콜롬보시 세무행정 정보화마스터플랜 수립 및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사업('24-'28, 111억원) 등
- 민관협력 패키지사업과 복합금융* 등 활용 기업 참여 활성화, 개도국 민간 부문 직접지원 및 프로그램차관 확대('24년 인나·필리핀)로 개발효과성 제고
 - * (예) 방글라데시 하수처리시설 구축사업: EDCF(하수처리장) + EDPF(하수관로) 연계 지원

【 지구촌의 공존과 상호 번영 】

- 인-태전략 등 대외정책을 고려한 맞춤형 ODA 전략 수립,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5대 분야 중심으로 국제사회 SDGs 이행 촉진
 - *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보건·의료 ▲식량 안보 ▲교육
- GCF, GGGI 등 환경분야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인도 등 다수요 지역 중심으로 대형인프라사업 추진 확대
 - * (경제) 인도 고속도로 ITS 구축(2,151억원) / (사회) 방글라데시 종합병원 건립사업(3,203억원) 등

【 파트너십 고도화 】

- 우리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확대, 美·日·英 등 주요 공여국 등과 협조체계 구축(정보공유·공동사업 추진·협업체 운영 등)
* 분담금 기여순위가 경제규모(GDP 13위) 대비 낮은 수준(UNDP 14위, UNHCR 18위, WFP 19위)
- 시민사회 협력사업 확대('23년 479억원→'24년 570억원), ODA 관련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추진
* ▲전문가 단가/요율 현실화 ▲행정절차 간소화 ▲인력운영 자율성 확대 ▲전문교육 등
** 현지 협업체 활용 현지 사업수요 분석·수원국 협의 지원, EDCF 외화표시 차관 확대 등

3 ODA 성과제고를 위한 체계 공고화

- ODA 예산 확대 대응, 유·무상 제도개선과 함께 시스템을 활용한 집행관리* 및 중·장기 혁신로드맵 마련(6월) 등 추진
* 통합정보포털에 집행실적, 부진사유 등 입력(시행기관) → 점검(주관기관) → 국개위 보고
- 재외공관의 사업발굴·모니터링 역할 강화*, 재외공관·시행기관의 핵심역량** 보완, 사후관리사업 발굴 확대 등 현장성·통합성 제고
* 사업발굴시 재외공관·시행기관 협의 강화, ODA 협업체 운영 강화(대상국 확대, 반기→분기) 등
** ODA 예산 증가에 따라 사업발굴·협의·추진 등 현장을 관리할 조직·인력 등 보완 필요
- ODA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활성화 등 대국민 참여·인식 제고

3 사업 발굴 방향

◆ 향후 사업 발굴 방향성을 사전에 제시하여, 국가전략에 부합하는 사업 기획·발굴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사업 심사·조정시 해당 사업 우대

- (양자) 그린, 과학기술·ICT, 보건의료, 식량, 인도적 지원 등 중점 발굴, 아시아·아프리카 중심 기조 유지, 중점협력국 및 CPS 중점분야 집중 투자
- (다자) 5대 중점협력기구* 및 주요 국제금융기구(WB 등) 중심 발굴
* UNICEF(유엔아동기금), UNDP(유엔개발계획), WFP(세계식량계획), UNHCR(유엔난민기구), WHO(세계보건기구)
- (고려사항) 대외정책(외교·경제·통상 등)과의 정합성 강화, 사업간 연계·패키지(공공-민간, 유-무상, 他공여국 협력 등) 적극 추진

2. 아세안 개발협력전략

1 추진 배경

- 아세안은 외교·경제적 중요성이 높은 우리 ODA 최대 지원 지역*
* 최근 5년간 아세안 지원액은 24억불로, 양자 ODA의 25% 차지('18~'22 증여등가액)
- 10개국 중 6개국이 중점협력국*으로 국가협력전략(CPS)을 보유하나,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 전략은 부재
* (중점협력국)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일반협력국) 말레이시아, 태국 (비수원국) 브루나이, 싱가포르

⇒ 인태전략의 對아세안 ODA 지원 방향을 구체화하고, 아세안의 미래도약과 연결성 증진을 지원하는 지역전략 수립

2 현황

- 국별 발전수준 격차*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개발협력 수요도 상이
* (고소득국) 브루나이, 싱가포르 (상위중소득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하위중소득국) 베트남, 필리핀 (최저개발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 아세안은 공동번영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간 연결성을 강조하며*, 역내 발전격차 해소를 위한 ODA의 중요성 증대
* 아세안 연결성 종합계획(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16) 등을 통해 물리적(교통, 물류, 에너지 등)·제도적(무역, 투자 등)·인적(교류) 연결성을 강조
- 주요 공여국은 아세안 연결성 전략 실현을 위한 개발협력 추진
* 최근 5년간 아세안 지원 규모는 362억불('18~'22 증여등가액)이고, 일본·미국이 절반 이상(지원액 비중 : 日 41%, 美12%, 獨 10%, 濠 7%, 韓 7%)

3 기본 방향

- ① 인태 전략('22.12월) 등 대외정책과 ODA 전략 간 정합성 확보
- ② 아세안의 수요와 우리의 강점을 고려한 대형 시그니처 사업 추진
- ③ 국별 맞춤형 지원을 하되, 초국경 문제에 있어 다 국가 간 협력 강화
- ④ 연결성 증진을 위한 아세안 자체 전략의 이행을 지원하는 협력 추진

4 주요 내용

□ (비전) 아세안과의 공동번영을 위한 동반자적 개발협력
Development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with ASEAN

□ (중점 추진과제) 아세안의 수요와 우리의 강점*을 고려하여 선정

* 인태전략상 아세안 ODA 중점협력분야 : 디지털, 교육, 기후변화, 스마트시티, 교통 등

○ (맞춤형 지원) 발전단계별 상이한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포용 발전 (Inclusive ASEAN) → 혁신 발전(Innovative ASEAN)의 2단계로 지원

지원방식	지원 대상	중점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혁신 발전 (Innovative ASEAN)	중소득국	경제인프라 대형화·고도화	- 대형 경제인프라 확충 - 데이터 기반 인프라 고도화 지원 (ITS, 스마트시티 등)
		디지털 혁신 지원	- ICT 첨단기술 개발 지원 - 디지털 기반 민-관 혁신 촉진
		미래산업 협력 강화	- 미래산업(전기차 등) 성장 지원 - 기술표준 협력 강화
포용 발전 (Inclusive ASEAN)	최빈국, 저소득국, 중소득국 저개발지역	사회인프라 확충	- 기초보건 및 교육 지원 강화 - 소외지역 개발
		디지털 격차 해소	- ICT 기초인프라 구축 - 디지털 기초활용역량 개발
		주력산업 발전 지원	- 농수산업·관광산업 육성 - 전통적 제조산업 기반 강화

○ (공동현안 해결) 기후변화 대응 등 초국경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美·日 등 주요 공여국과의 협력* 및 역내 삼각협력 강화

* 韓 KOICA(필리핀 사무소) - 美 USAID 공동추진 사업 예시 :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 강화사업('21-'25) / 도시 기후회복력 역량강화 사업('22-'26)

□ (이행방안) 아세안 연결성 전략 이행을 지원하는 개발협력을 추진

연결성	이행전략	예시
물리적 연결성	역내 GVC를 고려한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주요 경제회랑의 경유 도시에 물류 플랫폼 구축 지원
제도적 연결성	기술표준화 협력 및 국제규범(Global Standard) 도입	기술·산업 표준협력 확대 및 법제도(지재권 등) 자문 제공
인적 연결성	산업인력 양성을 통한 역내 원활한 노동이동에 기여	표준화된 직업기술교육 가이드 마련·보급

○ 중점협력분야*를 중심으로 대형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 민관 협력사업의 성공사례 축적을 통해 향후 경제협력 활성화 뒷받침

* ▲ (교통) 장대교량, 공항, 도시철도, ▲ (디지털) 스마트시티, ▲ (기후변화) 전기차, ICT 기반 기후재난대응, ▲ (교육) IT인재 양성, ▲ (보건) 보건행정체제 전수 등

3. '23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 및 '24년 평가계획

1 추진 배경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14.1월 시행, 제13조)에 따라, ODA 정책·사업에 대하여 △위원회평가와 △자체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위원회평가) 정책·전략·국별·분야별 등에 대하여 대표성 있는 정책·사업을 선정하여 종합 평가 실시
 - (자체평가) 시행기관이 소관 사업 중 평가 대상 과제 선정, 평가전문위원회 검토 후 자체적으로 평가 실시
 - * OECD 개발원조위(DAC) 권고(▲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일관성)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목적에 따라 평가기준 설정

2 '23년 평가결과

* 위원회평가 3건 및 자체평가(33개 기관 116건) 추진

- (위원회 평가) 평가전문위원회(위원장: 개발협력본부장) 주관 실시

① 국별종합진단(캄보디아·인도네시아)

- 협력국 관점에서 우리 ODA 수행체계 및 사업효과성 전반 진단

* 국내-수원국 연구기관간 합동연구, 설문, 심층인터뷰, 타 공여국 사례분석, 현지조사 등

⇒ 우리 ODA에 대체적으로 만족하나, 사업 대규모화, 현장 참여 확대, 추진절차 간소화, 사후관리 강화 등 제언

② ODA 시행기관 기관역량진단

- 중위 규모(10억원) 이상 25개기관 중 12개 대상('22년 13개기관 기실시)

⇒ 5단계(S~D) 중 평균 B등급으로, 기본적 성과관리시스템은 작동하나, 사업 종료 후 관리·평가 단계에서 기관역량 개선 필요사항 확인

③ 기후변화대응 ODA 사업평가

- OECD '리우마커' 중 기후변화 감축·적응 사업의 성과분석

⇒ 단계별 성과관리, 수원국 맞춤형 지원, 지원규모 확대 필요

- (자체평가) 총 33개 기관, 222개 사업(116건 과제) 대상 평가 추진

3

'24년 평가 추진방향

◆ ODA 지원규모 확대에 따른 우리 ODA 사업 성과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관리체계 평가, 시행기관 역량강화 추진

- (현장·전문가 중심 ODA 진단·평가) 중점협력국 위주 전략·사업 프로세스·효과성 등에 대한 종합진단 지속 실시
- (ODA 성과지속성 확보) 주요 종료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등 분석
- (자체평가 품질 제고) 사업단계별 성과관리역량 및 메타평가 강화

4

'24년 평가계획

* 위원회평가 3건 및 자체평가(36개 기관 120건) 추진

□ (위원회평가) 사후관리 점검 및 자체평가 메타평가 강화 등 추진

① (국별종합진단) 대륙별 거점국가 3개국*으로 대상국 확대, ODA 추진체계 및 성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점검 실시

* 평가전문위·시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륙별 최대 지원순위 국가 중 ▲아프리카 ▲중남미 ▲CIS 중 중점협력국 3개국 선정 예정

⇒ 국별 사업추진 현황 및 효과성에 대한 종합진단과 종료사업 성과 및 사후관리 실태 점검 등 현장기반 개선방안 도출

② (기관역량진단) 중위 규모(10억원) 이상 12개 기관 대상, 성과관리 역량(50%), 자체평가 메타평가(50%) 등 사업추진 단계별 진단

⇒ 금년부터는 별도의 전문가 심층검토 등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강화, 기관역량진단 배점 중 메타평가 비중 상향(30→50%)

③ (ODA 연수사업 평가) 무상 연수사업* 대상 그간의 추진현황, 추진체계, 사업효과성 분석을 통해 성과발굴 및 개선방안 도출

⇒ 우리나라 비교우위 부문(발전경험·성공 노하우) 활용을 통한 한국형 ODA 연수사업 체계 수립

□ (자체평가) 36개 기관, 402개 사업(과제 120건) 대상 평가 예정